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 위치는 Langara-49th Avenue역에서 걸어서 10분이여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처럼 크지않았지만 적당히 크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학교 식당에 팀홀튼, 매점, 전자레인지가 있어 편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고 깔끔하였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첫 날 듣기평가 후 반을 나눠서 첫날부터 수업하였습니다 저희 반은 한국인4명 일본인 10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수업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 보다는 영어로 자주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주제를 주고 그룹으로 자주 대화를 하는 방식이었고 선생님이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관심이 많아 수업 도중 주제 외에 한국과 일본의 문화 등에 대한 대화를 자주 하였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카약: 첫 주에 가는데 햇살이 너무 강했습니다 썬크림과 선글라스는 챙겼지만 모자를 안챙긴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추가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2명이서 카약을 타는데 노를 저으면서 옷소매,바지,신발이 젖었는데 생각

	보다 금방 말랐습니다 밴쿠버관광 : 5명 정도가 1조가 되어 가이드학생과 함께 밴쿠버 관광명소를 돌아다닙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다니기에 자유롭지 않고 한정적이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기에 편한 신발과 복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쿠아리움 : 아쿠아리움이 스탠리 파크에 있는데 3시에 끝나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닌 그 곳에서 끝나기 때문에 주변 관광지로 가는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휘슬러 : 곤돌라를 타고 정상을 올라 가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겉옷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첫 주는 너무 더웠습니다 홈스테이부모님이 이번 주는 이상할 정도로 덥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주 차 부터는 낮에는 더웠지만 밤에는 추웠습니다 아침도 살짝 쌀쌀했지만 반팔로 돌아다닐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교실이 항상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겉옷은 항상 챙겨 다녔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운타운에서 홈리스를 볼 수 있었고 너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스트 헤스팅스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환승을 위해 잠시 있었는데 홈리스 수백명을 보았습니다 캐나다인들은 홈리스가 해치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홈스테이부모님,아들2명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은 2층구조로 위층에는 제방, 일본인룸메이트방,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었고 아래층은 홈스테이 가족공간과 세탁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후는 홈스테이 가족은 아래층으로 가 있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의 홈스테이는 샤워제한이 없었고 빨래는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미지근 따뜻한 물로 샤워 했었고 3번정도는 냉수로 샤워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0) 외부식당 (0)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식사는 시리얼, 계란후라이를 먹었고 베이컨,소시지도 가끔 먹었습니다 저녁식사는 제가 항상 밖에 나가서 먹고 와 첫 날을 제외하고는 홈스테이에서 같이 저녁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점심식사는 항상 샌드위치를 홈스테이에서 제공했는데 2주차부터는 배고파서 한인식당에서 컵라면 사서 같이 먹었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저는 집이 zone1에 있어 zone1 캠퍼스카드를 받았습니다 밴쿠버 도로가 가로,세로로 되어있어 어디든 가기 편했습니다 zone 2로 갈때는 추가비용을 내야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45만원	
쇼핑	30만원	
입장료,교통비	20만원	
합계	95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이전 후기들을 보고 저도 가기 전 홈스테이 부모님께 메일을 했으나 답장을 못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많이 챙기고 드라이기도 챙겼습니다

홈스테이 가족 구성을 출국 전에 알 수 있기에 선물과 룸메이트 한 명을 위한 선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에 같은 반 일본인 친구들에게 줄 선물이 없어서 후회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줄 간단한 선물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스테이마다 다르지만 저의 집은 점심을 샌드위치만 주었습니다

첫 주는 식욕이 없어 몰랐지만 2주차 부터는 배고파서 한인식당가서 컵라면을 사서 같이 먹었습니다

출국 전에는 캐나다 가서 무슨 한식이냐 라는 생각이었지만 캐리어 공간이 남는다면 컵라면과, 컵밥 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돈만 있다면 캐나다 한인마트에서 다 살 수 있지만 한국보다 비쌉니다

유심칩을 미리 사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맵이 잘되어 있어 밖에서 경로 검색과 버스 시간을 바로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3주동안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영어로 대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것과

홈스테이에서 직접 캐나다인과 살아보고 한국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캐나다인들은 항상 친절하였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영어로 정보를 얻고 생활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인 것도 좋았습니다

3시에 끝나 유명한 관광지도 가보고 갈 곳이 없을 때는 보통의 공원도 자주 갔는데 어

느 곳을 가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정해져 있어 그것을 목표로 할 것이지만

마음 속으로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나 코업도 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간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텐데 이번 기회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

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Science world	Pink Alley
	
BC주 국회의사당과 참전기념비	스탠리 파크
	
Poutine	캐필라노 협곡